<해킹 예방법>

1.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사용하며 비밀번호도 모두 다르게 설정할 것!

대부분 한두 개의 아이디를 돌려쓰며 비밀번호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는 해킹에 노출되면 연쇄적으로 모든 사이트에 있는 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답니다.

1. 쉬운 비밀번호(Easy Password)는 사용하지 말 것!

이지 패스워드가 쉽게 뚫리는 이유는 브루트 포싱(Brute Forcing)이라는 해킹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브루트 포싱은 일명 무차별 대입하기 기법으로 이지 패스워드의 경우 자주 쓰이는 패스워드를 모아둔 목록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록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해보기 때문에 훨씬 보안이 뚫리기 쉬운 것이죠.

1. PC방에서는 중요한 작업을 하지 말 것!

대부분 PC방은 컴퓨터가 꺼진 후 다시 켜지면 모든 작업이 초기화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가 업데이트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요. 이런 환경은 제일 위험하고 취약한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을 하면 유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답니다. PC방이 아니더라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는 그만큼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코드 오류라는 취약점을 통해 해킹이 이루어지지만 업데이트는 그런 오류를 수정해 해킹의 가능성을 매우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1. 공개된 장소에 위치한 컴퓨터에서 로그인할 일이 있다면 크롬의 시크릿 탭(익명 탭)을 사용할 것!

동사무소와 같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는 로그인 정보가 남는다면 해킹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따라서 로그인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크롬의 시크릿 탭을 이용하면 악성코드를 통해 정보가 전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1. 사물 인터넷(IoT)을 사용한다면 주기적인 점검을 받을 것!

모든 사물을 하나로 연결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사물 인터넷(IoT)은 해킹을 당할 경우 매우 위험한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사물만 해킹해도 전체의 사물을 모두 해킹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여름에 보일러 시스템을 해킹해 온도를 높인 후 금전을 요구했던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해킹 문제 심각하다>

**"75만원 주면, 어떤 폰도 탈탈"…온라인 '해킹 흥신소' 성행**

“안드로이드, 아이폰 기종 불문 해킹 가능합니다. 75만원이면 어떤 스마트폰도 털어 드립니다.”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킹 비용 상담’ 관련 게시 글이다. 일정 금액만 내면 목표로 삼은 사람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해 정보를 빼주겠다는 것이다. 견적을 의뢰하니 해커는 스마트폰 메시지를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으로 가로채는 장면을 보여줬다.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뉴스페이지에 접속하자 해커의 컴퓨터에도 스마트폰 화면이 실시간 중계됐다. 해커는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며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스마트폰 해킹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유명 배우와 기업인, 정치인, 방송인의 사생활이 해킹을 통해 유출되는 것은 물론 일반인도 방심하는 사이 해킹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조선일보 사례>

언론시민단체로부터 광고불매운동 압박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가 이번엔 부산 서면의 디지틀조선일보 옥외 전광판이 해킹 조롱까지 받으며 수난을 겪었다. 특히나 전광판을 해킹한 이가 본인을 중학생이라고 밝히면서 여론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 14일 오후 매일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 1·2호선 서면역 인근 한 한 빌딩 꼭대기에 설치된 디지틀조선일보 옥외 전광판 화면에 광고 대신 PC 메모장 프로그램이 열린 상태에서 "조선일보 전광판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문구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많은 부산시민이 해당 전광판 문구를 목격하게 됐고, 이 문구가 찍힌 장면의 사진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져나가면서 실제 중학생이 언론사의 전광판을 해킹한 것인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직 이 사건은 누가 어떤 경로로 전광판 프로그램에 접속해 해당 문구를 남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부산지방경찰청 관할이지만 해킹 사건 등을 담당하는 부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17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우리도 모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가장 개연성이 높은 추정으로는 사건 이후 한 트위터 이용자가 전광판 관리에 많이 활용되는 '팀뷰어'(TeamViewer)라는 프로그램의 관리자 계정이 사전에 전광판을 통해 노출된 사실을 알리면서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해킹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보안업계에서는 이 같은 해킹을 '화면 변조 공격'이라고 불리는 디페이스(Deface) 공격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번 공격은 아이디와 비번만으로 쉽게 프로그램에 접속해 화면 변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해킹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엔 코레일 광고판 화면이 팀뷰어 프로그램에 의해 변조된 적이 있는데 이때도 메모장 화면엔 자신을 중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코레일 광고판의 보안성을 비판하는 문구가 노출됐다.

보다 고차원의 디페이스 공격 중에는 지난 2013년 6월25일 청와대 홈페이지가 "Hacked by Anonymous"(어나니머스가 해킹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킹당한 사건이 유명하다. 하지만 당시 어나니머스(국제해커조직) 측은 "청와대를 해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정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북한 행위로 추정하고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주간 단위로 조선일보의 광고 데이터를 집계하여 광고 불매기업을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제18차(9일~14일) 집계 결과 삼성전자가 총 5회의 광고를 조선일보에 게재해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2위에는 전면 광고 3회의 삼성생명·삼성화재·롯데관광·우리은행·신한은행이, 3위에는 서울대학교 (전면광고 1회, 5단광고 2회)가 선정됐다.

강성원 기자